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동춘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상에서는 피부를 희게 해주는 크림을 사용했다가 얼굴을 망친 태국 여인을 크게 소개한 바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약 70종류의 불법 크림이 슈퍼나 약국에서 유통되는데, 이것을 바르면 서양 여성처럼 피부가 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망가뜨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여성 10사람 중 4사람이 피부 표백 크림을 사용한다고 한다.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의 TV에서는 '완벽한 백색'을 강조하는 화장품 광고가 매일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거의 백인과 유사한 미인들이 등장하여 여성들의 관심을 끈다.

지난해만 아시아에는 62종의 새로운 피부 표백제가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이 크림의 주요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은 피부에 대단히 유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이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흰 것이 아름답다'는 신화가 아시아 여성들에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은 얼굴의 여러 부위 특히 코를 서양 여성처럼 높이는 일 등 외모를 서양 여성처럼 잘 살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은 '황금의 비율'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앞선 것은 코 수술이라고 한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왜 아시아 여성들이 이렇게 흰 피부와 높은 코에 집착하는지는 좀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베블렌(Veblen)은 흰 피부가 유행급의 '기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층민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흰 피부와 고운 손에 집착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아시아 여성들의 흰 피부, 높은 코에

대한 집착은 유행급임을 과시하거나 유행급으로 상승하기 위한 전략만은 아닌 것 같다.

흰 피부를 열망하고 코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것은 단지 외모지상주의 때문만은 아니고, 서양 미인을 닮고 싶고 그들처럼 잘 살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바로 서양인화, 즉 흰 피부를 가진 서양 여성이 미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기부정은 바로 과거 아시아 식민주의의 역사,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을 달리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파농(Fanon)은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바꾸려는 흑인들의 열망을 보고서 '외관의 노예'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자신의 주체를 부인당한 흑인들의 예속 상황이 정신적 예속을 낳았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특히 생물학적 존재를 부인하고 백인을 닮고 싶어 하는 '가망없는 노력'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국주의는 20세기의 유행만도 아니며,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 최고의 성형외과 천국인 지금 한국 땅에, 그리고 강남의 외곽에 몰려 있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냥 예뻐지기 위한 단순한 동기에서 표백제를 사용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여성까지 모두 싸잡아서 너무 심각하게 논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피부 표백제 잘 못 사용하다가 얼굴창치는 여성이 더 많이 나오기 이전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다.

"왜 흰 피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흰 피부와 높은 코는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는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초적 열망 혹은 외관의 노예?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의 TV에서는 '완벽한 백색'을 강조하는 화장품 광고가 매일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거의 백인과 유사한 미인들이 등장하여 여성들의 관심을 끈다.

지난해만 아시아에는 62종의 새로운 피부 표백제가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이 크림의 주요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은 피부에 대단히 유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이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흰 것이 아름답다'는 신화가 아시아 여성들에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은 얼굴의 여러 부위 특히 코를 서양 여성처럼 높이는 일 등 외모를 서양 여성처럼 잘 살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자신의 주체를 부인당한 흑인들의 예속 상황이 정신적 예속을 낳았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특히 생물학적 존재를 부인하고 백인을 닮고 싶어 하는 '가망없는 노력'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국주의는 20세기의 유행만도 아니며,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 최고의 성형외과 천국인 지금 한국 땅에, 그리고 강남의 외곽에 몰려 있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냥 예뻐지기 위한 단순한 동기에서 표백제를 사용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여성까지 모두 싸잡아서 너무 심각하게 논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피부 표백제 잘 못 사용하다가 얼굴창치는 여성이 더 많이 나오기 이전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다.

"왜 흰 피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흰 피부와 높은 코는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는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육아·교육비 부담 해소 없인 출산율 높일수 없다

걱정거리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젠 세계 최저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1.08명으로까지 줄었다. 전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 줄어든 것이며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도 2.04명으로 우리나라의 배에 가깝고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과 프랑스도 각각 출산율이 1.29명과 1.90명으로 우리보다 높다.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가임여성 1명이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2020년대가 되면 인구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며 그 자체로 엄청난 국력위축을 가져온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급감의 원인으로 육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이구동성

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만혼(晩婚)이 일반화 되고 이는 출산율 저하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인 사교육비 부담도 젊은 부부의 출산기피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취학 전 어린이들도 학원 순례를 해야하고 지난 5년간 초등학교 해외유학이 30배나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풍토 속에서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머잖아 저출산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 출산 장려책으로 한계가 뻔하다. 직업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길 수 있는 시설의 획기적 확충과 함께 최소한 유아교육단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주는 조치가 담겨야 할 것이다.

내신확대 앞서 고교 학력격차 해소 선행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 국내 고교간 학력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8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수확평가에서 서울 Q 외국어고는 전체의 72%가 전국 기준 상위 4%에 포함 반면 서울 일반계 Z고는 상위 11%내에 든 학생이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고교간 학력격차는 우리나라 대입 정책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껏 학교별 학력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 주요대학을 유박 지르다시피 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한 교육부 방침 저변에는 고교별 학력격차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고교간 학력격차는 엄존하는 현실이다. 특수목적고와 일반계 고교간 차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내에서도 극

심한 학력차이는 존재한다. 정부 의도대로 내신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8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수확평가에서 서울 Q 외국어고는 전체의 72%가 전국 기준 상위 4%에 포함 반면 서울 일반계 Z고는 상위 11%내에 든 학생이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고교간 학력격차는 우리나라 대입 정책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껏 학교별 학력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 주요대학을 유박 지르다시피 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한 교육부 방침 저변에는 고교별 학력격차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고교간 학력격차는 엄존하는 현실이다. 특수목적고와 일반계 고교간 차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내에서도 극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강현옥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원환자 식사는 일반식·치료식·별급식·분유 등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식사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일반식의 경우 한 끼당 기본 식대 가격은 3천390원. 질을 높여 추가서비스를 하는 경우 각종 가산금액(선택 메뉴 가산 620원·직영 가산 620원·영양사 가산 550원·조리사 가산 500원 등)을 가산하되 최대 5천68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대여를 통한 부당 청구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또 식대 가격을 보면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가격에 비해 1천500원~2천500원이 싼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받는 가격보다 1천원~2천원 정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책정했다.

따라서 대학병원은 식재료 단가를 낮춰 식사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양과 구조조정의 발미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이밖에 결정된 대학병원 식대 가격의 경우 기존 식대가격보다 낮아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대학병원 환자

병원밥값 건강보험 적용 보완해야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 식대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살 미만 아이들의 경우 기본 식대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며 가산금액에 대해서만 환자가 50%를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식사의 질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병원 밥값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임원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의 12.2%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병원 밥값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커다란 성과임에 분명하다. 또 직영 가산 등의 가산방식 도입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영양사나 조리사를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 가산하는 것은 고용 창출 효과와 식사 질 개선 기대 효과에도 불

식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경실련이 "가산항목은 환자 선택 여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률은 50%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 환자 식대 상충 압력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취지라면 임원환자식에 대한 의료소비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 환자식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농가 LPG가스 관리 허술... 세심한 주의

농촌 지역에서 LPG 가스를 너무나 위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농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과 논·밭까지의 거리가 멀어 점심때면 미리 LPG 가스 등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국이나 기타 음식을 끓여먹는다.

하지만 가스에 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 등도 없어 잘 나오지 않으면 없는 것

으로 여겨 방치하기도 한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나이트 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 가스 사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 기울이는 습관을 형성해 현실이다.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서늘하고 농기계로 인해 파손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낫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흑고니 (Black swan)



검은 고니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새로,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 등 아열대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동물원에서 몇 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대개 번식이 불가능하여 해마다 숫자가 줄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동물 전문가들은 겨울 같은 기후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고니는 다른 말로 백조다. 백조는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가 있을 정도로 자

태가 우아하다. 하지만 흑고니는 이런 백조들과 사뭇 다르다. 백조와 가분이 틀린 탓일까,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짧은 다. 넓은 오리발에 잘 날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모양은 영 실망스럽다. 그러나 날지 못하는 탓에 동물원에 있던 한 마리는 야산 너구리에게 습격을 당해 희생됐다. 이 녀석을 보면 차라리 블랙 스완이 동물 전문가들은 겨울 같은 기후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고니는 다른 말로 백조다. 백조는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가 있을 정도로 자

독자마당

오토바이 곡예운전 위험천만... 철저한 단속필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곡예 운전이 심하다.

정해진 차로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들 사이를 뒤편 차선을 따라 비집고 돌아다니는 가 하면 아예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피해 도로 중앙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모두 묘기 대행진을 벌이는 것 같다.

자신만 빨리 가겠다며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은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 위험도 훨씬 높다.

이런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게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키 어렵다.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괜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아무리 바빠도 틈새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송희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신용카드·금융상품 약관표기 잘보이게 해야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여러 금융기관에서 펀드 등 투자 상품을 찾아 알뜰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정기를 예금·보험·카드·펀드 등 금융 상품과 신용카드로 보험 계약이 접하는 약관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깨알같이 써져 있다.

그나마 전문 용어가 많은데다 분량도 많은 탓에 자칫 소홀하기 쉽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계약인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세심히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서도 지나치지는 않다.

이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괜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종종 있다. 보험사나 카드사 등은 소비자를 위한 약관이라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항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약관 글씨와 차별하게 적는 것도 또다른 방법인 것 같다.

소비자를 위한 약관이라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라. 아니라면 민피상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無等鼓

'올파(All Par)' 경이로운 단이다. 아마추어 골퍼가 18홀 전 홀을 이렇게 파로 끝내고 장갑을 벗는 날, 그날은 생애 최고의 날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온몸으로 뻗는 전율감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그건 꿈에 불과하다. 가령 전 반 나인을 올파로 마쳤더라도 후반 나인부터는 무결점의 '파'라는 기록이 있을 리 없다. '18홀 전 홀 버디'는 어떤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 없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버리는 '인간'이 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다.

며칠 전 타계한 타이거의 아버지 얼 우즈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타이거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아빠, 난 언젠가는 18개의 버디를 기록하고 말 거야"라고 말했다'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인 타이거의 오래전 목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 드시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아버지도 믿고 아이들도 믿는다는 것이다.

'1천만 달러의 천재소년' 위성미가 여덟 번째 도전 끝에 남자대회 첫 통과를 달성했다. 위성미는 막 10살

을 넘긴 나이 때부터 '언젠가는 남자 선수들과 당당하게 겨루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왜 고집스럽게 남자대회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멀찍하게 대답한다. "재미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이.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한국대회였다고 일각에선 깎아내리고 있지만 위성미가 미국(PGA)을 접수할 날도 머지 않았다. 누구도 꿈꾸어 보지 않았던 무한도전에 나서는 두 천재들, 그들이 산산이하는 놀라움에 그저 경의를 표할 뿐이다.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